

## 안개 너머의 세계

이규식

국경에서 한 걸음 내디디면 완전히 다른 나라인 것처럼,  
우리의 세계는 서로 **맞닿아 있다**.  
우리는 보려 하지 않는 세계의 거주자이자,  
낮과 밤의 세계를 자유롭게 유영하는 존재들이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어도  
당신은 자욱한 안개 너머의 세계를 바라볼 엄두조차 내지 않는다.  
우리는 당신의 곁에 있는 동시에 어둠이 내려앉은 도시를 거닌다.

오용석의 개인전 제목인 ‘알로스테릭 진저(Allosteric Ginger)’는 무엇과 결합하는지에 따라 자신의 역할과 자리가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알로스테릭과 연관 적갈색을 의미하는 진저의 합성어이다. 그가 선택한 두 단어는 각각의 의미로, 그리고 하나의 의미로 현실을 살아가는 퀴어의 존재를 은유한다. 작가는 인종적인 의미를 포함해 진저라는 색상이 가지는 ‘미묘함, 다양함, 드물’에 주목한다. 색에 있어 드물다는 표현은 그 자체로 많은 사람에게 선택되지 않는다는, 주류가 될 수 없다는 뜻을 내포한다. 그의 그림에 등장하는 미묘한 위상의 색상들은 언뜻 그 이름을 떠올리기조차 쉽지 않다. 비가시적인 존재들을 화면에 옮기는 작가의 행위는 이름 없는 것들에 대한 호명이기도 한 셈이다.

소수자를 배제하는 이성애 중심적인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를 포함한 퀴어들은 여전히 비가시적인 영역에 존재한다. 대다수의 성소수자는 자신이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는 커뮤니티 밖의 공간에서 성적 지향 혹은 성별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간다. 학교나 직장, 혈육 가족에게도 온전한 자신일 수 없는 우리는 개인의 정체성을 고민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외부의 폭력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또 다른 자아를 만든다. 그것이 이성애 중심의 사회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기 위한 생존 방식이다.

그의 그림은 개별적으로든 전체적으로든 명료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는다. 작품은 일제히 한 방향을 가리키는 대신, 무작위한 방향을 산발적으로 가리킨다. 근원을 알 수 없는 깊은 곳에서부터 출현한 단상들은 마치 지난 밤의 꿈처럼 얼마나 구체적인지 혹은 얼마나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지와는

별개로 재빨리 움켜쥐지 않으면 이내 사라진다. 다음의 문장들은 가까스로 부여잡은 몇 가지의 단상들에서 출발한다.

## 1. 사랑의 모양

동명의 소설과 영화의 제목을 차용한 《THE SHAPE OF WATER》(2020) 연작에서 오용석은 마치 식물의 이종교합과 같이 서로 다른 두 종(種)의 결합을 보여준다. 단색조의 화면은 유기체의 형태적 특징과 표면의 질감을 더욱 강조하는 동시에 주변을 둘러싼 공기마저 포착하고 있다. 이들은 위아래 각각 이질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도록 매끄럽게 연결되어있어 그 자체로 완전한 단일 개체로서 존재한다. 그는 저마다의 모습으로 하나 됨의 가능성을 그리며 다양한 사랑의 형태를 보여준다. 사랑에 있어 외적인 형태와 조건이 얼마만큼 중요할까. 이상적인 사랑의 형태는 무엇이며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까.

그의 작품에서 느껴지는 사랑에 대한 시선은 수천 년 동안 계속되어온 지난한 사랑 이야기 중에서도 플라톤(Platon)의 『향연』 속 등장하는 아리스토파네스의 연설을 연상시킨다. 두 개의 두개골이 서로 연결된 <삼>(2019)에서와 같이, 태초에 하나였던 우리가 신의 분노를 사 둘로 쪼개졌다는 오래된 이야기. 그렇게 불완전한 우리들은 본디 하나였을 영혼의 반쪽을 찾아 나선다. 그 원형의 모습은 생물학적 관점에서 남성과 여성이 하나의 몸으로 결합한 형태뿐만 아니라 남남, 여여의 모습까지 포괄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표준’으로 정의한 이성애 규범을 벗어나 더 넓고 다양한 가능성을 상상하게 한다. 또한, 우리 스스로가 태생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 역시 이성애에 대한 규범적 시각을 돌아보게 한다. 무수히 많은 사랑에는 무수히 많은 형태가 있을 뿐, ‘이상적인 사랑의 형태’야말로 (불가능하며 재미도 없는) 환상이다. 그는 남과 여, 이성애자와 동성애자를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유의 헤게모니에서 나아가, 하나 되며 어느 한쪽을 지우지 않는 것, 서로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고유하게 만날 수 있다는 가능성과 태도를 비추고 있다.

## 2. 고대의 주문

과거 고대의 조각가들은 무형의 돌을 깎아내고 다듬어 이상적인 형태를 부여했다. 그로부터 까마득히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조각을 손에 쥔 우리는 그저 이것들이 다산과 풍요 혹은 아름다움을 상징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유구한 역사 속에서 이분법적 체계와 아름다움에 대한 이상향을 품고 태초부터 신성시되었던 신체들은 현재에도 빛바랜 유물로써 박물관 한편에 자리 잡고 있다. 오용석은 자신의 연작 《UNDER THE SKIN》(2020)에서 이렇게 수만, 수천 년 전부터 몇 세기 전까지 이르는 조각의 형상들을 빌려온다. 그리고 멈춰있던 조각들에 폭발하는 생명의 에너지를 부여한다.

작가는 조각의 단단한 외피를 한 꺼풀 벗겨내고 그 속에 금방이라도 움직일 것 같은 꿈틀대는 근육을 상상함으로써, 이들의 조물주에게도 부여받지 못했던 생명력을 선사한다. 언제나 그 자리에 이상화된 존재로서 멈춰있던 조각들은 생동하는 에너지를 부여받는 대신 기존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신성함을 박탈당한다. 날것 그대로의 모습으로 응축된 에너지를 뿜어내는 조각의 모습은 더는 이상적이지도, 소원하는 대상도 될 수 없다. 그는 이상화된 신체를 끌어내려 지상으로 추락시킴으로써 기존에 그것들이 가지고 있었을 정형화된 이미지와 관습을 해체하고 새로운 존재로 독해할 있는 가능성의 균열을 촉발한다. 희망찬 유토피아도, 절망으로 가득 찬 디스토피아도 걷어낼 때 비로소 우리는 현실에서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 3. 꿈

작가가 2011년부터 시작해 올해 마무리한 7m의 대형 작업 <CAROUSEL>(2020)은 구상과 추상,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에서 떠다니는 상념들이 혼재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형상은 어떤 선언문이나 구호와는 달리 방향성이 없고 자유롭게 부유한다. 작가의 말대로 그의 작업들이 각각 ‘특정한 시간대의 개인적 응축’이라면, <CAROUSEL>은 응축된 시간이 겹겹이 쌓인 모습이다. 시간의 흐름을 물리적으로 축적하는 식물의 나이트와 같이, 켜켜이 축적된 시간들은 화면에 불규칙적으로 펼쳐진다. 이렇게 펼쳐진 이미지는 작가의 의도대로 분절되고 파편화된 도상으로, 그리고 형형색색의 색상으로 저마다의 목소리를 내며 이 모든 것을 n개의 서사로도 엮지 못하게 만든다. 서사가 부재한 자리에서, 그림을 보는 우리에게서 언어화하기 힘든 감상이 일렁인다. 파도처럼 일렁이는 감상은 우리의 내면에 밀물과 썰물처럼 들어왔다 나가기를 반복하고, 화면에 겹쳐진 시간의 모습처럼 수많은 궤적을 남기며 축적되고, 밀려온다. 숨 막히게 내면을 뒤흔드는 거대한 꿈을 마주할 때, 화면을 쫓는 개인의 시선들은 서로 겹치고, 교차하며 흩어진다.

### 안개 너머의 세계

국경에서 한 걸음 내디디면 완전히 다른 나라인 것처럼, 우리의 세계는 서로 맞닿아 있다. 우리가 딛고 있는 땅, 같음과 다름의 경계를 구분하는 선 아래의 대지는 동일한데도, 현실에서 퀴어적 존재들은 늘 비가시적인 영역으로 추방되어 왔다.

불과 얼마 전 예기치 못한 재난의 시대가 도래한 뒤, 사람들은 비난의 대상을 찾기 시작했다. 혐오는 속주를 옮겨 다니는 바이러스처럼 특정 집단을 옮겨 다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성소수자에게 그 차례가 돌아갔다. 그리고 오랜 시간 다분히 의식적으로 성소수자를 외면하던 정부는 ‘방역의 관점’에서야 비로소 커뮤니티, 공동체로서의 성소수자들을 호명했다.<sup>1</sup> 이성애 규범만이 정상임을 외치는 사회에서 퀴어의 존재는 삭제되거나 혹은 괴물로 왜곡되거나, 사회·경제적 위기에 특정 집단적 표적으로써만 가시화되어 왔다.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억압의 역사를 반추할 때, 성소수자와 이성애자의 지형도는 일견 양극단의 대척점에 위치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렇다면 둘을 양분하는 경계는 절대적인 것인가?

오용석의 작업은 디스토피아도, 유토피아도 아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를 포착하고 경계를 더듬는다. 작가의 화면에 나타나는 형태와 색채, 질감과 목소리는 바로 그 경계에 위치한다. 그는 2017년 개인전 《홀리 그레이》에서 “보통 우리는 화이트와 블랙을 꿈꾸지만 모두 블랙에 가까운 회색지점, 화이트에 가까운 회색지점에 위치할 뿐이다. 온전한 화이트, 블랙은 미적분의 1과 0처럼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 1과 0 사이는 무한한 경계의 세계이고, 실제로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1과 0의 지점, 화이트와 블랙의 지점에 있다고 믿는 이들은 경계 사이의 무한을 인지할 수 없다.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지각할 수 없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에게 있어 경계란 서로 다른 것들을 양분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세계이자 현실이다. 그는 이성애적 규범에서 독해되어 온 사랑의 형태와 도상을 퀴어적으로 전유하며 경계의 지평을 확장한다. 이러한 시도는 정상 규범을 둘러싼 안개를 걷고, 그 자리에 지워진 이름을 불러낸다. 우리는 그 안개 너머의 세계에서 무한한 경계의 지대를 느끼며 자유롭게 유영할 수 있을 것이다. 용기를 내 손을 뻗으면, 그렇게 모든 세계를 아우르는 더 넓은 세상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껍데기를 벗겨 내고 남은 사랑의 정수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

<sup>1</sup> 황필규, 「[세상읽기] 코로나19: ‘미등록’과 ‘커뮤니티’의 탄생」, 『한겨레』, 2020년 5월 14일, <http://www.hani.co.kr> (2020년 5월 20일 검색).